

개성있는 창법과 올바른 발성의 공존에 관한 고찰 - ‘가수 박효신 앨범’ 중심으로 -

조영욱,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cyw0502@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Coexistence of Stylistic Vocal Articulation and Proper Vocalization Techniques

- Focusing on albums by singer Park Hyo-shin -

Young-Wook Jo,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서론에서는 흔히 ‘주류’라고 하는 대중음악을 이끌어가는 가수들이 올바른 발성을 배제하고 독특한 개성만을 추구하는 것에 한계점이 존재하는지, 부상 가능성의 여부가 있는지를 의심해보고 올바른 발성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다. 본론에서는 가수 ‘박효신’의 앨범을 시간순으로 제시하면서 각 앨범의 대표적인 수록곡 1곡씩을 예시로 하여 발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노력을 통해 발성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보였음을 알려준다.

1. 서론

대중가수들이 사용하는 발성 방법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대중이 좋아하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대중음악’이라는 틀 안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발성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시대의 유행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흔히 말해 ‘주류’라고 하는 대중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수들에게 독특하고 개성 있는 창법은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1]

이들은 조금 더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연구하고 매 앨범마다 더 발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발성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독특한 음색 유지를 위해 발성기관을 혹사 시킨다면, 고음역의 한계점 저하, 부정확한 음정 표현, 부적합한 호흡 사용, 호흡량 부족, 발성 기관의 과도한 긴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발성기관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렇기에 일부 가수들은 올바른 발성법과 자신만의 음색의 합의점을 찾기위해 엄청난 시간과 연구를 거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보컬트레이너로서 개성있는 음색과 올바른 발성의 합의점을 잘 가지고 있는 가수 중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앨범별 발성의 변화를 통

해 어떠한 합의점을 찾았고 한계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보컬리스트들이 올바른 발성을 연구하고 연습하여 가수의 생명을 연장하고, 올바르게 않은 발성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것에 목적이 있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가수 ‘박효신’의 1집부터 작성일 기준 가장 최근 앨범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다. 모든 수록곡을 담지 않고 발성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몇 곡을 본인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2.1 각 앨범에 따른 발성의 변화

박효신의 1집부터 최근 앨범인 7집까지 대표적인 수록곡들을 예시로 제시하며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발성 변화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수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성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어떤 시도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유추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1999년

발매된 박효신의 1집 수록곡 중 ‘해줄 수 없는 일’[1]에서 전체적인 소리 위치는 생각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고 근육의 사용도 두성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근육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호흡 공간을 넓혀 비교적 소리가 넓은 흥성의 음색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특히나 가성 표현에서는 톤이 너무 얇아지지 않게 공간을 좁히기보다 호흡을 넓게 통과시키는 쪽을 선택하여 더 거친 소리로 들리게 함으로써 흥성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2001년 발매된 2집 수록곡 중 ‘동경’[2]에서는 1집보다 음색을 조금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 조금 더 소리 위치를 흥성의 위치에 고정시켜 유지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1집보다 전체적인 공간사용이 훨씬 커졌음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1집에서 사용했던 두성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많이 배제된 모습이 보이고 음색의 통일성이 조금씩 생겨가는 시기이다. 때문인지 전체적인 음정이 1집에 비해 다소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다음 해 2002년에 발매된 3집의 ‘좋은사람’[3]을 들어보면 2집보다 추구하는 음색이 완성된듯한 모습이다. 2집에서 시도했던 넓은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했고 소리 위치가 확연히 2집보다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2년 후 2004년 발매된 4집 수록곡 ‘그곳에 서서’[4]에서는 음색의 완성에 안정적인 호흡 사용법까지 터득한 듯한 소리를 들려주며 발성 적으로도 더 완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고음적인 한계도 없을뿐더러 음색 유지를 방해하지 않고 발성에 필요한 적절한 근육들을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가 우리가 익히 떠올리게 되는 ‘박효신’이라는 가수만의 독특한 음색이 완성된 시기라고 보인다. 이후 긴 공백 끝에 2007년에 발매된 5집의 수록곡 ‘추억은 사랑을 닮아’[5]에서는 이전에 보여줬던 흥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발성에서 조금씩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특한 음색은 아직 남아있으나 공간을 억지로 확장시켜 흥성의 색이 질게 묻어나던 창법에서 벗어나 가볍고 부드러운 창법을 구사하고 있다. 턱과 혀가 비교적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모음 ‘ㄷ’, ‘ㄱ’, ‘ㄴ’ 발음이 나는 가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흥성의 색이 묻어나는 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모음에서는 음정에 따라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위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년 후 2009년에 발매된 6집의 수록곡 ‘사랑한 후에’[6]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의 창법을 구사한다. 턱과 혀가 비교적 아래쪽에 있는 발음에서도 흥성의 음색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을 신경써서 열어주는 창법도 5집에 비해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앨범인 7

집 앨범은 엄청난 공백을 깨고 6년만인 2016년에 발매된다.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뮤지컬 무대에도 서는 등 발성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발생했다. 수록곡 ‘숨’, ‘야생화’[7] 등의 노래를 들어보면 뮤지컬 발성을 습득하여 전보다 전체적인 성대 접지 정도가 더욱 많아졌고, 흥성의 음색을 유지하려고 사용했던 비교적 불편한 근육들은 거의 배제가 된 상태이며 호흡을 통한 비강의 사용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7집에서 들려주는 발성의 형태는 현대 보컬 트레이닝에서 추구하는 발성의 유지, 음정의 정확도를 높여주는데 극대화 된 형태의 발성이다. 음정에 관계없이 음색이 비슷하게 정돈되고 저음에서도 적절한 압력을 사용하여 소리의 전달력도 매우 좋게 변화였다[8].

3. 결 론

박효신이라는 가수는 모든 앨범에서 독특한 음색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좋은 형태의 발성을 보여준 굉장히 희귀하고 실력 있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여준 앨범에서는 조금 더 발성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보여 보컬적으로 공부할 점이 매우 많은 가수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독특한 음색이라는 것은 가수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징이 없는 가수는 기억되기 쉽지 않고 인기를 얻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서도 올바른 발성을 유지하면서 발성기관을 상하지 않게 하여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변화를 비춰보면 이 또한 노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 [1] Oh, H. S. (2003). "A Study on the Popular Singing Metho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inging Method", M.S. thesis, Dep. of performance Art, Dongduk womens university. (오한승, (2003). "전통 발성과의 비교를 통한 대중가요 발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석사학위 논문)
- [2] 박효신 1집 - 해줄 수 없는 일
- [3] 박효신 2집 - Second Story
- [4] 박효신 3집 - Time Honored Voice
- [5] 박효신 4집 - Soul Tree

- [6] 박효신 5집 - The Breeze Of Sea
- [6] 박효신 6집 - Gift
- [7] 박효신 7집 - I Am A Dreamer
- [8] Miller, R. (2001). The structure of singing.
Wadsworth